

상상의 날개를 달자! '대한민국 발명 콘텐츠 공모전'



한국발명진흥회는 청소년과 일반인들의 발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지도 제고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우수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04년 대한민국 발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29일까지 인터넷으로 사전접수가 가능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우편으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참가하면 된다.

개인 및 단체가 참가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에는 개인은 플래시 애니메이션, 발명 CM송, 발명교육 홍보동영상, 발명이야기(발명 체험수기) 부문에 공모할 수 있고, 단체는 발명만 동아리 자랑, 발명 포토앨범 만들기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각 부문에 합당한 출품작을 CD로 만들어 참가신청서와 작품상세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발명진흥회로 제출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명가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공모전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을 비롯하여 특허청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한국특허정보원장상 등 13개의 상이 주어지며 7백4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상자들에게 돌아간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ipacademy.net)와 전화(02-3459-2769)로 문의하면 된다.

발명꿈나무들의 요람, 발명공작교실 증설

특허청은 미래 선진기술 한국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발명꿈나무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올해에도 전국에 16개소의 신규 발명공작교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발명공작교실'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발명창작 활동을 위해 설치된 발명교육의 지역 중심센터로서, 95년 서울 인현중학교에 시범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백26개소가 설치되어 활발하게 운영, 연간 30여만 명의 발명꿈나무들이 전담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지도 아래 제2의 에디슨이 되기 위한 꿈을 가꾸어 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총 26개소의 발명공작교실 설치를 신청하여 발명창작활동의 필요성과 발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지난 10여년간의 발명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탐구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일선 교육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발명교육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상북도 김천 발명공작교실 강경숙 원장은 '발명교육은 단순한 공작활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며,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타학생들에 비하여 월등히 뛰어나다'며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발명교육을 받음으로써 미래의 대 발명가나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허청은 발명공작교실 등을 통

한 체계적인 발명교육이 학생들을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각 시·도 교육청 및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학생발명활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발명공작교실의 지속적인 설치 및 지원을 통한 발명교육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우수 발명꿈나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3년에 이어 금년 9월에도 '제 2기 발명장학생'을 선발,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발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오는 '05년 12월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국제특허연수부에 '지식재산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전국의 우수 발명영재들을 대상으로 차원 높은 발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서 최우수 교육청 선정

충남교육청은 최근 개최된 '제 2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충남지역 출전 학생들이 2개의 금상과 은·동상 각 8개를 획득,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야간에 레이저 포인트 빛이 유리를 통과할 때 붉은 점이 유리에 남는 현상을 이용, 다양한 별자리와 별의 운동에 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쉽고 정확한 만능 별자리 지시 세트'를 출품한 공주정명학교 1학년 과정 박익용 학생(지도교사 임정규)이 금상에 선정됐다.

또 농약 분기 뒷부분에 받침대를 설치해 양 어깨에 미치는 중력에 의한 압력을 받침대가 대신 흡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들이 농약 분기시 활용할 수 있는 '농약용 분기 효과 받침대'를 개발한 보령대창초교 정준용 학생(지도교사 임은하)도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우리집 보일러실은 기름냄새가 안나요'라는 발명품을 선보인 부여 구룡초등학교 정다정 학생 등 8명이 은상을 수상했으며, '간편한 한약가열기'를 출품한 논산대건고등학교 한정수 학생 등 8명도 동상을 수상하는 등 최다 수

상자를 배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발명 CEO 연찬회와 지역별 연수 등을 개최해 학생들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창작의지를 북돋워 줄 계획'이라며 '지도교사와 학생들에게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전문가 결연 지도 등을 통한 작품의 개별화 지도를 실시, 과학 교육 선진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작들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된다.

e-마켓 통해 특허상품 인터넷에서 만난다

오는 10월부터 특허상품을 인터넷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하동만)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박광태)는 국내 최초의 특허기술상품 전문 e-마켓인 바이인벤션닷컴(<http://www.buy-invention.com>)을 구축, 우수한 특허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e-마켓인 바이인벤션닷컴에서는 차별화된 시스템 전략을 통해 다양하게 발명품을 접할 수 있으며 편리한 기능으로 손쉽게 쇼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발명품들을 3D와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특허증 품질인증서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안전하게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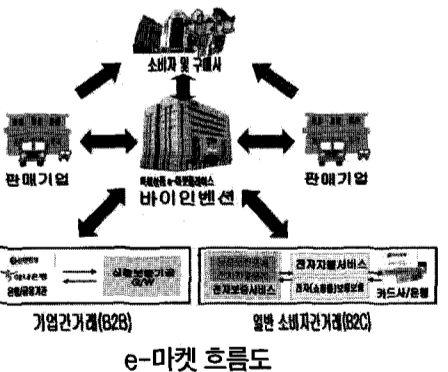
e-마켓은 기업을 위한 B2B e-마켓과 일반 소비자를 위한 B2C e-마켓 등 크게 두가지로 구성된다. B2B e-마켓의 경우 건축자재 등 원자재류가 전시되며, 일반 소비자를 위한 B2C e-마켓에는 가전용품을 포함한 생활용품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e-마켓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발명진흥회는 10월 오픈 시점에 맞춰 각각 1천개 내외의 상품을 전시할 방침이며 이후 품목수를 계속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와 같은 특허상품 e-마켓을 통해 우수 특허기술 상품의 사장을 방지하고, 특허상품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 기업의 전자거래 및 전자무역의 향상을 돕는 등 발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허와 실용신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특허기술을 상품화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점이 가능하고, 심의를 거쳐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이제 발명가는 자신의 발명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반인들은 좀더 쉽게 발명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발명품을 쉽게 접근하고, 우수 발명품들이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e-마켓을 개발하게 됐다'며 '바이인벤션닷컴을 통해 특허기술상품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려드립니다

전국 순회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개최 안내

지역	일시	장소
제주도	8월 12일(목) 오후 2시	제주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경상남도	9월 3일(금) 오후 2시	경상남도 여성회관
전라북도	9월 7일(화) 오후 2시	전라북도 여성회관
안성기능대	9월 9일(목) 오후 2시	안성여자기능대학 강당

※ 각 지역 회원 및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특허분쟁 10가지 사례 전략②

상대방의 무분별한 침해소송에는 단호한 대응을...

외국의 경쟁업체로부터 침해소송을 당한 경우라도 면밀히 검토하면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상대방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불리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말고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례1 동아제약 vs BM(Bristol Myers)사

동아제약은 'Amikancin'이라는 항생제를 개발하여 국내특허를 획득하고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던 중 미국의 BM사로부터 동 제품에 대한 사업포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고, 신중한 검토 없이 '침해를 인정한다'는 회신문을 보냈다.

이 회신문으로 인하여 BM사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애로를 겪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승소함으로써, BM사는 동아제약과 상호 라이선스(cross-license)를 통하여 상호무상 사용에 합의했다.

이 경우를 보면 BM사의 경고장에 동아제약은 신중한 검토 없이 침해를 인정한다는 회신문을 보냄으로써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사례2 효성 vs 미국 하니웰사

효성은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시장의 28%의 시장점유율로 이 부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이고, 미국 하니웰사는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다투는 경쟁업체이다.

'01년 4월, 하니웰은 효성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미국특허 US 5,630,976호)를 허가 없이 사용하여 제조한 폴리에스테르 강력사(PET yarn)와 직물(Treated fabric)을 미국시

장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반입과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기했다.

효성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동사의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제조기술 및 제품은 하니웰의 미국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02년 3월) 및 하니웰의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02년 6월)을 잇따라 이끌어 냈다.

위와 같이 외국경쟁업체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적극적 대응을 함으로써, 제조기술 및 제품의 독자성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아 이 분야 선두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사례3 삼성전자 vs 일본 SEL

LCD 분야의 세계 시장을 국내업체가 최근 38% 정도 잠식하자, LCD의 중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업체가 시장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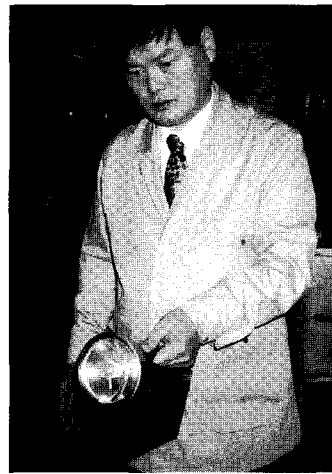
일본 반도체에너지연구소(SEL)는 LCD에 적용할 수 있는 박막트랜지스터(TFT) 관련 기술에 관한 미국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일본 SEL의 출원단계에서 선행기술 공개의무의 위반(오역)을 적극적으로 찾아 법원에 제시함으로써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특허를 무효화시켰다.

이처럼 상대방 특허의 출원절차상의 하자를 찾아내어 무효화시킬 정도로 적극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불리한 특허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People

'작은 생각이라도 놓치지 않는다면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민산업 대상'을 수상한 박성용 (주)동양 Light 대표이사



지난 7월 21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포럼 창설 10주년 기념 '부산시민산업 대상'을 수상한 박성용 (주)동양 Light 대표이사는 부산 지역의 유명한 발명가이자 사업가이다.

그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국내 발명진흥을 위해 여러 편의 논문을 '발명특허, 부산상공, 특허관리정보, 발명뉴스' 등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산·경남 발명인협의회'를 창설하여 수석부회장('84, '85, '86), 회장('87), 명예회장('91)을 역임하면서 영세 발명인의

연구비 보조, 출원비 지원, 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발명인 자질향상과 발명인구의 저변확대 및 발명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현재는 '국제수상발명가회'에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발명품도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

경제적 추세에 대한 예리한 인식과 새로운 기술 개발에 의지를 가진 경영인 중 하나인 그가 이번 '부산시민산업 대상'을 수상했다. 전문기업경영 부문에서 최고의 발명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최고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열중한 박성용 (주)동양 Light 대표를 만나보았다.

'생각만으로서 작동되는 라이트' 발명

박성용 대표는 '지식과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가기 위하여 새롭고 복잡한 지식들을 단순화 시켜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라고 말한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라이트를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도 '저 라이트를 켜야지'라는 생각만으로 불을 밝힐 수 없을지를 궁리한 끝에 그는 새로운 라이트, 이른바 '생각만으로 작동되는 라이트'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눈동자 인식만으로 라이트를 점멸시킬 수 있는 장치인 이 발명품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발명품들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비상용 라이트에 가스 및 열센서 무선송수신기를 부착해 외출 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경보음 또는 녹음된 음성으로 조기에 알려주는 랜턴을 개발하였는데 이 랜턴은 자동점멸장치, 누전감지장치, 연기감지장치, 말하는 기능 등 5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랜턴은 총선 및 대선에서 개표를 관리하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공급된 바 있고, '대전 EXPO'에 2천여개가 공급되어 당시 흥수로 물에 잠긴 행사장을 16시간 동안 밝혀 국내외의 수요자들에게 크게 각광을 받기도 했다.

현재 가정용 랜턴의 국내 수요만 해도 연 5억 내지 1백억원에 이르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로열티 계약을 맺어 외국에도 대량 수출되고 있다.

기술 개발을 통한 각종 발명특허와 기업화에 성공

박 대표는 특허 등록 11건, 출원 6건, 실용신안 등록 31건, 출원 44건, 의장등록 16건, 출원 19건 등 1백27건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국가산업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눈동자 인식에 의한 램프 점멸장치 개발은 세계적인 신기술로 인정받고, 특허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발명품을 기업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수입에 전량 의존했던 라이트 분야에서 일본의 혼고 라이트와 대만의 타이페이 라이트를 물리치고 국내 시장을 석권함으로써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왔고 동시에 일본 동경 판본산업유한공사에 수출함으로써 외화 획득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일상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또 좀 더 윤택하게 즐기기 위해 조금 더 생각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경제적 선진국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혔다.

특허넷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다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된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특허넷 시스템을 출품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모델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한 세계행정학회(IIAS)와 세계행정교육기관협회(IIASA)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워크숍(지난 7월 15일)에서 전자정부 우수사례로 '특허넷 시스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70여개 기관(국내정부관 44개, 외국정부관 20개, 기업관 10개)이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혁신사례를 보여 주었는데, 이중 특허넷은 외국에서 벤치마킹 요구가 쇄도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특허넷(www.kipo.go.kr)은 세

계 최초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기반 정보시스템으로서 특허출원부터 심사, 등록, 심판, 발송, 수수료 납부 등 특허행정 전 과정을 온라인화 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허넷 구축으로 인하여 해 약 2천3백억원의 행정 비용 및 민원 비용이 절감되고 있으며, 작년 7월에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 전자출원 1백만호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특허넷 개발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APEC의 자금 40만불을 지원받아 태국, 페루, 베트남 등에 기술컨설팅도 추진하기도 하는 등 그 우수성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결과로 '02년도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산하기관 등 총 2백3개 기관이 참가한 공공부문혁신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

상하기도 하였다.

금번 박람회에서 특허청은 특허넷 체험코너를 마련, 관람객들이 직접 특허출원에서부터 등록증을 수령하기까지 특허 전 과정을 시연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전 세계 2천9백만건의 특허기술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KIPRIS(www.kipris.or.kr)와 온라인 지적권 교육 전문사이트인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 등도 소개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일반인과 1천여명의 세계 행정학회 회원 등 국내외 관람객들은 특허넷의 혁신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IT 인프라, 국민의 인터넷 활용능력, 전자출원시스템의 우수성이 어우러진 전자정부모델(특허넷)을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